

고흥의 5년 도전...한국산 커피향 솔솔

2009년부터 시행착오끝 올 80kg 생산 상업화 성공
농민 10여명 6600㎡서 아라비카종 재배 '국내 최대'

유자와 커피 향기 바람에 흠날리고. 이탈리아 작곡가 마스카니의 오페라 곡 '오렌지 향기 바람에 날리고'처럼, 최근 고흥이 달콤한 유자와 진한 커피 향기로 가득하다. 유자의 고흥 고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커피를 상용화했다.

◇2조4800억 시장에 도전=국내 커피 시장은 2조4800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후와 토양으로는 커피를 상업적으로 재배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수입에 의지해 왔다.

최근 고흥, 제주와 강릉 등지에서 재배에 성공하면서 커피의 국내 재배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인류에게는 크나큰 위기지만 새로운 작물 재배는 가능성도 안겨줬다. 한반도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해진 것이다.

고흥에서도 '열정의 씨앗'이 꿈틀대고 있다. 고흥 농민들이 커피나무의 상업화

에 성공했다. 또 이들 고흥 농민 30여명은 고흥산 커피농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흥 열대농업 연구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고흥의 젊은 농민들이 주축이 돼 만든 고흥 열대농업 연구회가 고급 커피의 대명사로 알려진 '아라비카종' 커피 생산에 성공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커피를 상업적으로 재배하기 어렵다고 예상했지만 고흥 농민들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커피농사를 일구고 있다.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열대작물이다. 최적 생육온도는 16~28도이며,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육이 멈춘다. 0도 이하로 떨어지면 나무가 고사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관계자는 "열대 과일 재배에 가장 어려운 것은 겨울철 난방비"라며 "농민들이 고소득 작

물로 열대 과일에 도전하지만 기후 때문에 어려움이 컸었다"고 말했다.

아라비카종은 남미 고산지대에서 나는 고급 커피 종이다. 온난하고 시원한 고산지대는 화산재 토양이어서 물빠짐이 좋고 습도가 낮아 커피의 조직도를 지밀하게 해서 양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 또 커피는 평균기온이 15~25도 사이에서 잘 자란다고 한다.

고흥은 풍부한 일조량과 온화한 기후 그리고 자갈 양토가 많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아라비카종 커피나무 묘목이 고흥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흥 열대농업 연구회는 지난 2011년 커피 묘목 15년생 5주 등을 비롯해 200여 주를 시험재배에 성공해 상용화에 들어갔다.

고흥산 커피는 2011년 30kg, 2012년 50kg, 올해 80kg이 생산됐다.

농민들은 5~10년생 커피나무를 현재 300그루 키우고 있고, 1~2년생 커피 묘목 15만 그루를 키우고 있다.

커피묘목 1~2년생은 종자나 상태에 따

라 3000~1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10년생 커피나무는 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비싸다.

또 고흥에서는 농민 10여명이 시설하우스 6600㎡(약 2000평)에 커피를 재배하고 있다. 국내 커피 재배면적으로는 가장 넓다.

또 커피 마니아들은 커피체리(Coffee Cherry = 열매)를 흠에 심어 발아시킨 뒤 나무로 키우고 있다.

수입된 커피체리는 약품처리가 돼 발아율이 낮지만, 고흥산 커피체리는 바로 채취한 것이어서 발아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산 커피체리는 3~5월에 수확된다. 붉은 커피는 마니아들이 수확하자마자 100g에 40만원 정도에 구입해 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열대농업연구회 운영회 회장은 "보통 커피는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걸리는 커피 생두 운송물류 기간이 1~3년으로 길지만 고흥커피는 바로 수확해서 마실 수 있기에 신선함과 고흥의 해양성 기후와 토양이 만들어낸 독특한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메이드 인 코리아 커피'를 꿈꾸는 고흥지역 커피재배 농가들이 커피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위는 커피생두와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을 생성하는 로스팅 과정.

음식 맛 없으면 바로 환불...다시 찾고 싶은 '웰빙 휴게소'

남해고속도로 보성녹차휴게소

식당 좌석 늘려 증축 재개방

"운전자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휴게소로 만들겠습니다."

보성녹차 휴게소(소장 최영우)가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휴게소는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에 위치한 목포방향 휴게소와 보성군 검백면 수남리의 순천방향 휴게소 등 2곳에서 운영중이다.

당초 보성녹차 휴게소는 고속도로 건설시 통행량 예측 결과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간이 휴게소로 영업을 시작했다. 식당좌석은 32석에 불과했다.

특히 순천방향 휴게소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아 편의점만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식당이 없는 까닭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전국 최대인 36개의 휴게소와 주요소를 운영하는 대보건설(주)이 입찰을 받아 2013년 9월부터 휴게소 운영에 나섰다.



남해 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에 위치한 보성녹차 휴게소(목포 방향) 전경.

다. 순천방향 휴게소의 경우 지난해 11월 상수도 보호구역 허가가 풀리며 식당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대보건설(주)는 '다시 찾고 싶은 명품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휴게소를 증축해 개장했다. 목포방향과 순천방향 휴게소 식당 좌석도 132석으로 늘렸다.

휴게소 한식당은 '음식맛 보장제'와 지역특산물인 녹차와 꼬막을 이용한 신메뉴(보성녹차 고풍어구이, 보성녹동 애호박 고추장찌개, 꼬막 돌솥비빔밥, 꼬막

된장찌개)를 개발, 이용자들이 부터 호응을 얻었다. '음식맛 보장제'는 고객들이 음식맛이 없으면 바로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또 즉석에서 갓 지은 밥을 바로 제공해 밥맛 또한 일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음식맛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조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식당의 조리를 책임지는 조리실장은 이영돈의 '머거리 X파일'에 선정된 육산휴게소 '한방 닭곰탕'을 개발한 경력을 갖고 있다.

보성녹차(목포·순천방향) 휴게소는 보성 녹차밭과 별고갯벌 등 주변 관광지의 관광 역할을 하는 휴게소로서 매년 상춘객을 비롯해 여름 휴가철, 가을 산행객 등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보성녹차 휴게소 최영우 소장은 "단순히 찾아오는 손님만 맞이하기보다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며 더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속도로위의 '다시 찾고 싶은 명품휴게소'로 다져서겠다"고 강조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구례서 인천 국제공항공사-KFA 클럽 페스티벌 축구대회

2014 인천 국제공항공사-KFA 클럽 페스티벌 대회가 오는 8월 2일부터 9일까지 구례에서 개최된다.

구례군은 "지난 2월에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유치를 신청하고, 4월 축구협회 관계자 현지 실사를 거쳐 대회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소년 클럽부와 초등학교 클럽부 각각 32개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타 지역 클럽팀과의 축구 교류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꾀한다.

이번 대회는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조별 리그 기간 중 오후 일정에 개최될 관내 관광명소와 문화를 체험하는 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 앞서 개최가 확정된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사이클 대회, 국제 철인 3종 경기와 함께 군의 인지도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지리산 나들이장터 로컬마켓 운영업체 '구례공동체' 선정

구례군이 '지리산 나들이장터 로컬마켓' 운영주체를 확정했다.

구례군은 최근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서면 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농업회사법인(주)지리산 구례공동체(대표 김봉용)를 운영주체로 최종 선정했다.

운영주체에 대한 평가는 로컬마켓 운영 실적, 근무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적 평가와 로컬마켓 운영계획, 활성화 계획,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계획 등 정성적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위원으로는 박상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책임교수를 비롯한 4명의

전문가와 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로컬마켓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비 확보여부와 지역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장터 활성화 계획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해 해당 법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운영주체는 앞으로 군 및 지리산 나들이장터사업단의 지원 아래 입점자 모집, 기획생산, 홍보 및 마케팅, 로컬마켓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고용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오는 30일 시범운영을 목표로 차질없는 개장준비를 할 계획이다.

/구례=이성규기자 lsg@kwangju.co.kr




대한민국 최저가 LTE 기본료

LTE29 요금제 출시

휴대폰은 최신 LTE 폰으로! 통신비는 국내 최저가 LTE 요금제로!

추천요금제

기본료 (VAT포함)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약정할인
29,000원 (31,900원)	60분	200건	500MB	6,000원 (6,600원)

최신단말기

Samsung GALAXY S5



삼성 갤럭시 S5

LG G Pro2



LG G Pro2

VEGA 시크릿UP



베가 시크릿업

100% 가입 선물

티빙 실시간 TV 무제한 1년 이용권 100% 증정 (~2014.12.31 이전 가입고객 대상)

*"실시간 TV 무제한 이용권"은 모바일+PC+태블릿에서 180개 TV 채널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티빙의 상품입니다.

대한민국 1등 알뜰폰 헬로모바일 www.cjhellomobile.com 가입문의 1855-4949